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5.14 (통권399호)



경제이슈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성 증대
국내 실물지표 부진

경영노트

빅 데이터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사회 트렌드

행복지수
'유저머'의 등장

저널 브리프

인도는 중국시장과 다르다

洗心錄

콜린 파월의 리더십 지침

□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성 증대

-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하락세에도 제조업 업황 호조세를 바탕으로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고 있음
 - 중국 경기 동향 : 수출 약세 및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 1/4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8.1%를 유지
 - 제조업 업황 : 관방 구매자관리지수¹⁾는 4월 53.5p를 기록하면서, 1월 50.5p에서 4개월 연속 상승 국면 유지
 - 경기선행지수 : 1월 100.8p에서 2월 101.3p로 소폭 상승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해외 수요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을 표방하고 견조한 고정자산투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중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됨

□ 국내 실물지표 부진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소비, 투자, 생산 등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소비 : 3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7% 기록
 - 투자 : 3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부진을 보이며 전월대비 -7.0% 기록, 건설 기성은 토목공사가 증가하였으나 건축공사가 부진을 보이며 전월대비 -1.8% 기록
 - 생산 : 3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3.1%로 하락
- 최근 한국경제는 실물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생산 및 소비심리가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향후에는 경제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

1)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ment'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생산 및 출하·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하며, 관방 PMI는 중국 구매자협회에서 발표함.

□ 빅 데이터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²⁾

- 빅 데이터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나, 빅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맥킨지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정의함
 - 다보스포럼은 빅 데이터를 인류 사회의 모든 면에 관련되는 새로운 경제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지목
 - 전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예정이며 2015년 빅 데이터 시장규모는 16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됨
- 빅 데이터는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금광’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지 ‘잡동사니’에 불과함
 - 빅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있음
 - 빅 데이터 자체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므로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매출과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활용 기회를 찾는 전략이 요구
 -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마이너(Data Miner)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 분석·IT기술·비즈니스 역량을 동시에 갖춘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가 필요

< 빅 데이터 실전 사례 >

내 용	
자라	- 세계적인 패스트패션(Fast Fashion)업체인 자라(ZARA)는 속도와 맞춤형으로 요약되는 경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 - 전 세계 매장의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판매량 예측 및 재고관리, 소비자 수요에 맞춘 상품개발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베스타스	-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베스타스(Vestas)는 대규모의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대기 압력 등에 대한 빅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필요로 함 - 베스타스는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슈퍼컴퓨터 `파이어 스톰`과 IBM의 `빅 인사이트`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여 수 주일씩 걸리던 빅 데이터 분석 작업을 1시간 이내로 줄임

2) 본 자료는 Economy Plus의 ‘빅 데이터 기회의 땅을 열다(2012년 5월)’ 등 Cover Story를 요약 정리함

□ 행복지수³⁾

- 한 국가의 생산 측면에 집중된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삶의 질이 반영된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UN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예상된다고 함
 - 2006년부터 나온 유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소득·교육·빈곤·실업·건강·종교 등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를 기초로 측정하는 ‘행복지수’인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187개국 중 15위를 기록
- OECD가 지난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34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임
 - OECD 행복지수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과 앵글로색슨 국가들임
 - 우리나라는 교육(2위), 일자리(11위), 안전(11위) 등은 좋았지만 주거(28위), 환경(29위), 일과 생활의 조화(30위), 공동생활(33위) 등은 낙제 수준

□ ‘유저머’의 등장⁴⁾

-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선(先)경험 후(後)구매’를 특징으로 하는 유저머(usumer=user+ consumer)가 등장함
 - 사용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개념인 유저머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공유한 후에 구매를 결정함
 -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에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가서 제품에 관한 자세한 경험을 비교해본 뒤, 막상 매장에서 매장직원과 상담도 하지 않고 곧바로 물건을 구매
 - 여행도 마찬가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세세한 호텔 방문 후기를 읽고 구매를 결정
 - 이런 유저머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기업들이 할 일은 자명해짐. 사용자 경험을 중시해야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임

3) “GDP 대체할 행복지수 개발 국가 늘어난다”(헤럴드경제, 2012.5.11)

4) 조광수, “先경험 後구매, 유저머 등장”(조선일보, 2012.5.14)

□ 인도는 중국시장과 다르다⁵⁾

■ 거대한 인구 규모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중국과 인도는 ‘친디아(Chindia)’로 불리는 등 비교의 대상이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해야 함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 vs 자본주의 허가경제

- 중국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토지와 기간산업 분야의 핵심기업을 국유나 공동소유하고 있음
- 인도는 식민지 유산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허가경제 체제를 운영했으나 1991년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

② 중앙권력 vs 지방권력

- 중국은 공산당 체제 하에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막강하여 중앙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정이 운영됨
- 인도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지방 분권 및 자율성이 강하고 국정 운영에서 합의를 중시함

③ 인구 성장세 둔화 vs 지속 :

-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부양인구 비율은 머지않아 상승세로 돌아서 경제 성장여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 인도 경제활동인구수는 2025년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며 부양인구 비율 또한 현재 55.6%에서 2050년 4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④ 제조업 vs 서비스업

-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연평균 17.3%에 달하여 자본 축적을 기반으로 제조업·수출입 중심의 성장을 기록함
- 인도의 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9%를 기록하여 제조업 인프라가 열악한 대신 내수 기반이 강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함

⑤ 내수 확대 전략 vs 수출 확대 전략

- 중국은 투자·수출 중심에서 소비를 통한 내수 확대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여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인도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경상수지 적자 심화 등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에 따른 한계를 돌파하고자 함

5) ‘Next China? 인도는 중국과 전혀 다르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2.05.01) 참조

□ 콜린 파월의 리더십 지침

지난 2001년 콜린 파월(Colin Powell)이 부시 행정부에 입각하면서 그가 중령 시절부터 작성해 책상 유리 밑에 꽂아 놓았던 18개 항목의 ‘리더십 지침’(A Leadership Primer)이 워싱턴 관료 사회에서 크게 회자된 적이 있었다. 그는 자메이카 이민 2세로서 뉴욕 할렘에서 태어나 미국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직을 수행했던 아메리카 드림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런 그의 성공 비결을 짐작케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 지침’이다

“책임 있는 결정이나 행동은 때로는 일부 구성원의 불만을 수반한다.”(제1과) 모든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은 ‘평범한 인물’임을 자인하는 태도이다. 일부의 불평이 두려워 각자의 공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조직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다.

“부하들이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당신에게 가져오지 않는 날이 바로 그들에 대한 리더십을 상실한 날이다.”(제2과) 부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accessible), 도움을 얻을 수 있는(available) 리더가 훌륭한 지도자이다.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제4과) 리더십은 누군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에스맨이 있다면, 그와 당신 둘 중의 하나는 불필요하다.

“세세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라.”(제5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산만할 때 지도자는 오히려 두 배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세세한 일에 관심을 두지만, 부하들이 작은 일에 매몰되지 않고 늘 도전적이 되도록 격려한다.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제6과) 형편없는 중간관리자는 ‘명시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 없으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훌륭한 중간관리자는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므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조직.계획.경영이론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 조직 최고의 인재를 얻음으로써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제8과)

유능한 지도자는 가장 우수하고 창조적인 부하들을 모으고, 유지하고, 능력 발휘를 위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조직도나 그럴듯한 직함은 무의미하다.”(제9과) 부하의 진심 어린 충성심은 높은 직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활기, 추진력, 전문 지식, 팀원과 일에 대한 애정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현재의 자리에 너무 밀착시키지 말라. 그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너 자신도 함께 없어진다.”(제10과) 현 직무 내용에만 매달려서는 변화의 물결에 대처할 수 없다. 업무 평가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힘을 배가시킨다.”(제12과) 지도자의 열정과 낙관주의는 그 과급 효과가 상당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달성하겠다는 궁호(工和 gung-ho)정신이 요구된다.

“필요 정보량이 40~70%만 되면 배짱 있게 일을 추진하라.”(제15과)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의 과도한 지체는 ‘분석 마비’(analysis paralysis) 증세를 일으킨다.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을 지체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달리 판명되지 않는 한, 현장 지휘관은 항상 옳고 후선 조직은 틀리다.”(제16과) ‘수익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에게 힘과 재정적 책임을 주어야 한다.

“지휘를 즐겨라. 휴가를 얻었으면 미련 없이 떠나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제17과) 일도 열심이지만 잘 놀 줄도 아는 사람, 생활에 균형 감각을 지닌 사람, 직무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즐기는 자기만의 취미 영역이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통솔은 고독한 일이다.”(제18과) 리더십의 핵심은 조직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어렵고도 분명한 선택을 기꺼이 내려야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꿈무늬 빼는 것은 지도자의 직무 유기다.

**동기부여의 50%는 그 사람의 내부로부터 나오고,
나머지 50%는 그가 속한 환경, 특히 리더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 존 어데어(John Adair), 『Effective Motivation』